

인민의 마음 속에 깊이 뿐리내린 불쾌의 사회주의

오늘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으로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활이다'를 밝혀진 25돐이 되는 날이다.

주제 81(1992)년 11월 14일에 발표된 이 편지는 그 어떤 광풍이 휘어져도 사회주의를 확고히 신념으로 간직하고 사회주의의 위엄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의 의지가 박차고 있다.

천만군민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밟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의 강대성과 힘승의 기상을 험하게 펼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 있는 시기에 이날을 맞이한 것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일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는 원쑤들이 밟아하면 학살수록 사회주의기지가 더욱 높아들어야 하며 적의 반역적 명령세를 혁명적 공세로 짓부셔버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한 리념이며 침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의 물세에 대하여 다시금 천명하시고 사회주의의 위엄을 용하고 교수하고 전진시켜나가면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투영이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것이 로작에 판통되어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주체의 사회주의가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억척불의의 신념으로 간직된 나날이었다. 제국주의 한 탐색의 악랄한 반공화국 고립압

살해 등이 극도에 달하였지만 주체의 인민판, 인민철학을 구현한 우리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밟혀되었다.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 불멸의 보루로 위용떨쳐온 사회주의 성세가 우리 공화국이며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인민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고 인민적 힘을 변함없이 배운 고마운 품이 우리의 사회주의이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의 사회에서 살며 혁명은 온 우리 인민은 그처럼 헌신해온 고난의 시기 조국땅에 절친한 경이적인 현실을 통하여 그 광활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심으로 절감하였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 전구길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와 우리 인민은 떼여 떼여 없는 운명 공통체로 더욱 유연해지고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악파와 악관적인 초강도제재, 반동적인 사상문화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베어갈리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헤아려고 있다. 그러나 만난이 겹쌓일 수록, 적들이 미처 날뛸수록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의 신념은 더욱 확고부동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인민의 철대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인민을 위한 것, 인민적인 것인가가 정의로운 것으로 되고 최우선 시되는 우리 사회주의에서만 블

라 사회제도의 진보성과 반동성이 평가된다. 인민의 세상으로 되고 있는 사회가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인민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의 힘으로 위하는 북부전역을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를 위한 경제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국소수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가 우리 사회주의의 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위한 일이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주체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에게

고 두달 낮짓한 기간에 북부전역을 뉴대로 굽게 결합되어 있으며 온 사회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화목한 신시킨 적극적 승리는 이에 대한 두 명의 중시로 된다.

결코 무엇이 풍족해서도 아니었고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아무리 경제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국소수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인민대중을 위한 일이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주체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에게 절저히 북부전역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어기고 거기에서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주의의 업을 거칠게 해온 우리 인민의 고장으로 걸친 꿈도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전체 인민이 한 부름이 대명사로 되어 있고 하니는 전제를 위하여 전제는 하나를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집단주의의 전사화적,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편것이 바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이다. 하기야 우리 인민모두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인 주체의 사회주의의 대도제에서 터어나 살며 투쟁하는 것을 행복으로, 사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우리 사회주의의 끝없이 사랑하고 빛내여가고 있는 것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뿐리내린 우리 사회주의는 강위력한 힘으로 인민의 웃음을 지켜주고 활짝 꽂아주는 풀의 사회주의이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은 국력에 달려 있으며 사회제도와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민들의 웃음이다. 국력이 강한 나라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탁판을 안겨주지만 국력이 약한 나라는 인민들에게 비판과 질망만을

를 위하여 남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 사고방식, 약대가정을 이루고 생사운명을 같이 해우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자본나가는 여기에 우리 사회주의의 참모습과 우월성이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서로로 더 위에 위치하고 정을 두며 하여 하며 자기 자신보다 집단과 동지, 남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심과 가식이 없이 자기를 다 바치는 것인가 보편적인 일, 폐사운을 일로 되고 있다. 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과 피로움도 함께 나누며 동지를 위하여 퍼와 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우리 인민의 고장한 꿈도는 우리에게 빛내여가고 있는 것이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뿐리내린 우리 사회주의는 강위력한 힘으로 인민의 웃음을 지켜주고 활짝 꽂아주는 풀의 사회주의이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은 국력에 달려 있으며 사회제도와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인민들의 웃음이다. 국력이 강한 나라는 인민들에게 희망과 탁판을 안겨주지만 국력이 약한 나라는 인민들에게 비판과 질망만을

를 위하여 남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적 사고방식, 약대가정을 이루고 생사운명을 같이 해우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자본나가는 여기에 우리 사회주의의 빛과 힘을 물어내고 인민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을 지키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정의의 보감이다.

시련은 일시적이고 승리는 영원하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 인민의 마음이며 그 어떤 강요로도 없는 아이들의 천부로 되어 둘째 사람에게 없는 늙은이들의 천자식이 되는 것과 같은 미덕이 끊임없이 테어 나오고 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얼굴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 8년 세월 남모르는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의료진과 민사관을 감동시킨 선현들의 '처녀애'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고상한 인생관, 인간 윤리가 차넘치고 사랑과 정이 공기처럼 흐르는 일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서도 투쟁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고장에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인민의 부끄럼으로 밖에 달리 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들이 고장에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인민의 부끄럼으로 밖에 달리 될 수 없다.

오늘 미제의 지배주의, 폐기주의적인 책동에 의해 세계 도처에서 유혈적인 전쟁과 분쟁들이 그지 않고 있으며 적지 않은 나라는 인민들이 그 희생물이 되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오만무례한 강권과 전횡이 판무하는 오늘의 세계는 강한 국력으로는 물론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은 물론 인민이 순간에 망국노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인민의 힘의 신념과 탁판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주체의 사회

조학철

주체혁명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오늘의 행군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더욱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할 진리가 있다.

혁명의 한길에서 자기 평도자에 대한 번갈없는 충정의 한마음으로 간직한 신념의 강자들만이 모든 영광과 행복을 맞이하고 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뿐리내린 우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앙주체로 되고 있다. 인민의 힘과 전의가 가장 힘으로운 것으로 되고 있다. 인민의 힘과 전의가 최우선, 철대시되고 사회의 모든 청탁과 책임을 담당하는 철학자이며 학생이라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인민의 부끄럼으로 밖에 달리 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사회에서는 사랑과 민족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중요와 불신, 폐를 끼치며 벌하는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힘을 놓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자

당 사업의 한 부분으로 예고

순천시당위원회

순천시당위원회에서는 청년 사업을 당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잘 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직자들과 당일군들은 청년사업을 중시하는 당중앙의 의도로 깊이 새기고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이 당시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끌어들여 진행되도록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를 심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부장 이상 일군들이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갖추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허락하였다. 시당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날 시급기관을 담당한 한 일군과 마주쳤던 오용진시당위원장은 그가 자기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실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당위원회임은 그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담당단위 청년동맹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맹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보았다. 옳은 판단이었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였다.

시당위원회임은 그 날도 부상이상 일군들이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갖추고 담당한 단위에 내려갈 때마다 청년동맹일군들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만나 제기되는 문제를 수첩에 적어놓으면서 그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어하게 하는데서 찾았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주사업총회에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가지고 참가한 후,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한 사업에도 품을 같이 말씀하시였다.

여기서 본보기단위, 전형단위 선정을 잘 하였다. 세세의 위원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것들이 있어서 리수북청년협동농장과 순천직물공장으로 정하였다. 리유가 있었다. 영도업적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를 끌어입들이 늘어나기 위해서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지난 1월 리수북청년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로 정한 당적지도임을 알 수 있는 원인이 토끼우리가 불비한데 있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시당위원회 주사업총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당위원회임은 필요한 자재를 물어주기 위한 사업에 토끼우리를 고민하고 그 후 학교에 150m²의 토끼우리가 건설되어 놓았는데, 토끼우리를 꾸려온 데에는 일군들이 협력하여 토끼우리를 물어주면서 많은 노력과 노력을 기울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 시당위원회임은 그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담당단위 청년동맹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맹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보았다. 옳은 판단이었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였다.

시당위원회임은 그 날도 부상이상 일군들이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갖추고 담당한 단위에 내려갈 때마다 청년동맹일군들을

나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요한 문제를 풀려나갔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다음으로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를 찾았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한 사업에도 품을 같이 말씀하시였다.

여기서 본보기단위, 전형단위 선정을 잘 하였다. 세세의 위원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것들이 있어서 리수북청년협동농장과 순천직물공장으로 정하였다. 리유가 있었다. 영도업적 단위의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대한 당적지도의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를 끌어입들이 늘어나기 위해서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지난 1월 리수북청년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단위, 전형단위로 정한 당적지도임을 알 수 있는 원인이 토끼우리가 불비한데 있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시당위원회 주사업총회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시당위원회임은 필요한 자재를 물어주기 위한 사업에 토끼우리를 고민하고 그 후 학교에 150m²의 토끼우리가 건설되어 놓았는데, 토끼우리를 꾸려온 데에는 일군들이 협력하여 토끼우리를 물어주면서 많은 노력과 노력을 기울였다.

시당위원회일군들은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놓고 고민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다. 시당위원회임은 그것을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담당단위 청년동맹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맹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보았다. 옳은 판단이었다.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였다.

시당위원회임은 그 날도 부상이상 일군들이 청년동맹지도사업수첩을 갖추고 담당한 단위에 내려갈 때마다 청년동맹일군들을

청춘의 위훈과 밀불

◇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 세 차례 지펴올리는 위훈창조의 불길아래에는 거센 불길이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세계에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하면

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에서 제시된

전투적파업을 높이 밟들고 각각 당조직들과 당

일군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청년동맹조직들에 큼직한 일감을 맡기고 실천과정을 통해 청

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나고 있는 것은 시당위

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이들처럼 실속있게 짜고들자

전형 단위의 영예를 지닌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을

전형 단위의 영예를 지닌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을

당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중등 일반교육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다. 부여가 듣는아야 충실했던 열매가 달리 는 것처럼 중등 일반교육을 강화하여 과학기술강국, 인재 강국건설을 다그치며 전민과 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로 교육의 질이 높은 학교로 소문이 나고 올해에는 중등 일반교육부문의 전형단위라는 긍지높은 영예까지 지니게 되었는가.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는 중등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는 것은 실력전의 첫 공정

무슨 일에서나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전반적인 사업의 대과구를 열어놓았는데 먼저 해결하여야 할 중심고리가 있는 것이다.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의 사업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차지하여 놓고 완강하게 밀고 나간 것이다.

세해전 최정화교장이 이 학교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학생들의 전반적실력이 그리 높지 못하였다. 그가 이 학교에서 부교장사업을 하면 여러 해 전까지 하여 학교의 교육사업은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때 실력이 평정하였던 교원들은 년로보장과 받고 젊은 교원들이 교육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열伙 생각하면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선차리고 볼수도 있었다.

하지만 교장은 달리 생각하였다. 학교사업을 헤아리는 과정에 교육의 질이 낮아진 교원이나 교육력량이 약해진데도 있지만 보다는 전반적인 학생들 속에서 실력을 높이려는 열의가 부족한데 있다는 것을 포착하였다.

(조국보위초소에 서도, 사회주의경제 강국건설을 위한 초소에 가도 공부는 잘해야 한다. 당시 전쟁 1·2년제의 무교육체제를 실시하도록 한 목적제작자가 시지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세대들을 완성하는 중등 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다.)

교장은 일부 교원들의 의견대로 파외소조 운영에 힘을 넣을 수 없었다.

고급중학교교장은 그 집행하였다. 그것과 학생들을 모두 높은 지식수준을 갖추게 하여 사회에 내보냈다는 것과 차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것이 오늘은 별로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빠래에는 알찬 열매와 쪽정이와도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무거운 책임이 바로 중등 일반교육의 마감단계를 지켜선 자신들의 두어개우에

실력이 낮은 학생들만 모인 학급이어서 그 승고한 뜻을 높이 만들고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활용한 성과를 더욱 하였다. 학교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14명의 10월 8일 모교 교수자와 30여 명의 7·15 최우등상수상자를 배출하고 200여 명의 출업생들을 상급학교에 입학시켰으며 10여 명의 학생들을 전국적인 학과경연에 내보내며 모두 순위권에 입선시켰다.

하나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되어 전국적으론 교육의 질이 높은 학교로 소문이 나고 올해에는 중등 일반교육부문의 전형단위라는 긍지높은 영예까지 지니게 되었는가.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에서는 중등

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함에 대한 당의 승고한 뜻을 높이 만들고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활용한 성과를 더욱 하였다. 학교에서는 그 성격이 온화하고 알고 있는 것도 세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목을 돌렸다.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신심을 얻어주자면 밝고 동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담임교원은 그들 스스로가 토론과 평생을 벌리면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고 그문제를 하거나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목별임교원들과 학생학과책임자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주동으로 토론과 평생을 이끌고나가도록 하였다. 교원 앞에서는 주제마다 학생들이 성수가 나서 토론과 평생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공부에 제미를 더해나가게 되었다. 학교 학생들의 실력은 경쟁 뛰어올라 한해사이에 학년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학교에서는 이런 훌륭한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였다. 이렇게 학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과목별임교원들과 학생학과책임자들이 문제를 잘 풀어놓았고, 학생들은 이를 기울여나가도록 하였다. 교원 앞에서는 주제마다 학생들이 성수가 나서 토론과 평생을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공부에 제미를 더해나가게 되었다. 학교 학생들의 실력은 경쟁 뛰어올라 한해사이에 학년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학점을 세우는 사업은 학교의 전반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학교를 고조시키고 그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 학교 교육부문의 학생들은 전형단위로 학습계획을 짜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당시 학습방법을 통해 학습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먼저 학생들이 오후파와 학습시간을 통하여 그날 배운 것은 그날로 무조건 알고 넘어가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학생들이 이러한 학습에 익숙되지 않아 처음에는 이를 먹이기로 하였다.

학교에서는 오후파와 학습시간 간이 학생들 누구나가 차기마다 되어야 하는 학생들이 시험과 학습시간에 학생학과책임자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주동으로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하여 같은 중요한 학습방법의 하나가 토론과 평생이었다.

중학교시절의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텐구심이 강하며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물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된다. 스스로 사물현상의 틀을 파악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인이며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수업을 잘 받았다고 하여도 후날에는 잊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배운 교내내용들을 한주일 후에 다시 반복학습하도록 과학학습장을 짤 때는 물을 물어나가도록 학생들이 차기마다 토론과 평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원의 차질은 교육성과를 좌우하는 근본 요

순결한 량심과 성실한 로동으로 어머니조국을 밟들어나가는 애국자가 되리

힘 있는 기업소의 영예 떨치며

설비조립련합

『아마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우리 종업원들의 밭자국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을것입니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 책임임군이 한 이 말은 우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기업소가 창립된 때로부터 지난 50여년간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땅 북부의 서 멀리 무산이며 동, 서해지구의 심심 산골에 이르기까지 방방곡곡을 다니며 이곳로동계급은 50여년에 걸쳐 상당수 건설과 페스티벌을 성과적으로 달아 수행하였다.

늘 정든 집을 멀리 떠나 당시 부른는 소초에 깊은 위험을 새겨가고 있는 이들의 가슴마다에는 파란 그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떨어져거나 산도 끌고 기록하고 대우를 주는 기적을 끊임없이 향토애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뿌듯한 일이다.』

울해에도 이곳 기업소는 여러 중요대 상건설들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 가운데는 몇년 이상 걸려야 할 작업량을 지난 4월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까지만 10달만에 성과적으로 끝난 병기화학공장의 접촉부문 공정설비 장치를 조립공사도 있다.

지상에서 수십m높이에 설치해야 하는 접촉분해공정의 동축식 침강재 생기통체 조립공사는 지금까지 그들이 해보지 못한 어려운 공사였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게가 150여이나 되는 거대한 상부통체 50m에 높이 들어 설치하는 작업이었다. 작업현장에는 75톤 양력의 기중기밖에 없었다.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자면 향토애가 되는 기중기가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동계급은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않아서마다 거절하지 않았다.

『이런 때 27명의 영웅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려운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그들이 스스로 불려보는 그 영웅들은 지난 기간 기업소에서 배출된 자랑 많은 혁신자들이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설비조립공사를 비롯하여 당시 일군과 함께 고령도 중요한 대상공사를 허름히 수행하여 위대한 수령님들로부터 일상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그들처럼 살며 투쟁할 날이였다.

이런 일념을 안고 기업소의 동계급은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부기사장 리춘일, 기술일군들

인 박영근, 리명진 등무들은 낫과 밭이 떨어지는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속에 어려움의 턴

양기를 동시에 가지고 키우면서 도움이 없이 쇠비자를 려워하여 상부통체를 들어올릴 수 있

는 기발한 창상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모의 시험끝에 그들은

제작없이 상부통체를 들어올리

기 상부통체를 들어올리는 그날

은 천바탕이 몹시도 세게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다. 그러나 하루빨리 공사를 앞당겨 끝낼 열의로 높뛰는 기업소로 동계급의 심장의 열기를 조금도 식힐 수 없었다.

진영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랑쪽기로 주저없이 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근 30년을 기업소에서 일해오고 있는 연공직장의 오랜 연공인 윤대일 등무였다. 연공작업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기야말로 제일 적임자라고 하며 보조랑쪽기로 성큼성큼 오르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드디어 윤대일 등무의 호각소리에 맞추어 어려개의 전망기들이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당이 말려준 공사를 세기일에 무조건 끝내는데 힘든데 기업소의 영예와 빛내이는 걸이 있다.

이런 일념을 안고 기업소의

동계급은 한 사람같이 떨쳐나

섰다.

쇠비자를 끌려 높은 곳으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거대한 상부통체, 누구나 손에 땀을 쥐기 힘든 속에 어려개의 턴 양기를 동시에 가지고 키우면서도 그들이 스스로 불려보는 그 영웅들은 지난 기간 기업소에서 배출된 자랑 많은 혁신자들이었다.

뜻하지 않은 정황들이 수시로

제기되었지만 연공직장의 김길영, 윤일운 등무들을 비롯한 기

업소 종업원들의 회생적인 투쟁

으로 미세운 공장의 동계급이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한생

을 성실히 로동과 깨끗한 향신

으로 조국을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가치마다에는 오늘도 드림없는 철의 의지가 맹부치고 있다.

당이 안겨준 고귀한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있는 기업소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리라.

본사기자 리 건 일

고결한 도덕의 원심을いで

걸어온 길

당이 부르는 새로운 공사장으로 주저없이 달려가는 이곳 기업소로 동계급속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깊은 소행들이 매일, 때 시각 끌어내고 있는 것인가.

생일상을 받고 때나라는 자식들의 힘과 뿌리치고 중요대상 건설장으로 달려나간 자력갱생 직장 강침기동무를 찾아온 가정이 성의 있는 음식들을 안고 달려갔던 이야기며 어느 날이었다. 트리스로트를 위한 연공작업을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설치된 밭과 밭의 밭에 불꽃 뛰어진다. 어느 날이었다.

『트리스로트를 위한 연공작업을 하기 위해 높은 곳에 설치된 밭과 밭의 밭에 불꽃 뛰어진다. 어느 날이었다.』

지난해 3월 어느 날이었다.

총업원모임의 연단에 나선 대안친선유리공장 지배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하였다.

『이번 전투도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통무들, 우리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할하시다.』

불과 달달진 겁에 충돌하는 장군님의 일대를 풀어놓았던 그들이 그들의 진정한 한마디로는 힘에 차운다.

뜻하지 않은 정황들이 수시로

제기되었지만 연공직장의 김길영, 윤일운 등무들을 비롯한 기

업소 종업원들의 회생적인 투쟁

으로 미세운 공장의 동계급이

밝은 앞날을 그려보며 한생

을 성실히 로동과 깨끗한 향신

으로 조국을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가치마다에는 오늘도 드림없는 철의 의지가 맹부치고 있다.

당이 안겨준 고귀한 믿음을

심장에 새기고 있는 기업소의

영예를 더 높이 떨치리라.

본사기자 리 건 일

대안친선유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전투에서 또다시 전투로.

한쪽으로 말려진 판유리 생산을 다그치면서 전형하는 전투인 지라 힘에 부쳤고 막아나서는 해로와 난판도 없지 않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형도사적을

빛내는 소행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법률을 현실로 펼쳐워야 한다.』

지난해 3월 어느 날이었다.

총업원모임의 연단에

나선 대안친선유리공장

지배인은 이렇게 힘주어 말하였다.

『이번 전투도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통무들, 우리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어려운 힘에 차운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이번에도 결사전을 벌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판관

할수록 고마움을 더 높이 끌어올렸다.

